

“선발 나야 나”...마운드 경쟁 뜨겁다



김기훈

T 타이거즈 전망대

“연승 분위기 살리자”...한화·KT 원정 앞두고 마운드 총 가동 임기영 이어 김기훈·이민우 선발 어필...신예 강이준도 투입

KIA 타이거즈의 '선발 경쟁'이 펼쳐진다. KIA는 지난 1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으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감했다.

NC다이노스를 상대로 시즌 3승에 성공한 '막내' 김기훈을 시작으로 터너, 임기영이 롯데전에서 연달아 승리투수가 되면서 3연승을 이었다.

지난 28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는 양현종이 1500탈삼진과 함께 14승에 성공하면서, 4승 2패로 KIA의 한주가 끝났다.

이민우와 윌랜드가 남은 두 경기의 선발로 등판해 패전투수는 됐지만 일단 6회까지 책임지며 선발 역할을 해줬다.

특히 이민우는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8월 27일 삼성전에서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6이닝 5피안타 3사구 1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했다.

연승으로 분위기를 살린 KIA는 기본 좋게 원정 길에 나선다. KIA는 3-4일 대전으로 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하고, 5-6일 수원에서 KT 위즈와 대결을 벌인다.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2연전을 치른다.

새로운 한주, KIA의 선발진에 눈길이 쏠린다. 양현종을 시작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KIA는 '선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터너가 한 박자 쉬어가게 된다. 정상 로테이션으로는 6일 터너가 출격해야 하지만 이날 KIA는 마운드에 신예 강이준을 투입하게 된다.

또 앞선 선발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민우도 넉넉히 휴식을 취하고 5일 다시 선발 어필 무대를 갖는다.

김기훈은 7일 연승에 도전하는 등 KIA는 선발 후보들을 총 가동해 마운드 기싸움을 벌이고, 내년 시즌 선발진 구상에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각기 다른 장점과 특장의 선수들이 잇달아 선발로 나서게 되는 만큼 선발진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은 시즌 막바지 KIA의 새로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팀 투-타를 상징하는 에이스 양현종과 4번타자 최형우는 '1800'이라는 숫자를 겨냥한다.

앞선 등판에서 통산 5번째 1500탈삼진 기록을 작성한 양현종은 이번에 1800이닝을 노린다. 양현종은 앞으로 6.1이닝을 소화하면 통산 16번째 1800이닝 주인공이 된다.

지난 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역전 투런으로 3100루타(통산 10번째) 기록을 이룬 최형우는 이번 주 1800안타에 도전한다. 10개의 안타를 더하면 최형우는 통산 16번째로 1800안타를 채운 타자가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우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2일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스탠 바브링카(스위스)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어깨 통증으로 기권한 뒤 경기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코비치 어깨 통증 16강 경기 중 기권 US오픈 페더러는 8강 진출

'다벤딩 챔피언'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700만달러·약 690억원) 16강에서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2일 미국 뉴욕의 빌리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남자 단식 4회전에서 스탠 바브링카(24위·스위스)에게 3세트 경기 도중 기권했다.

1, 2세트를 4-6, 5-7로 내준 조코비치는 3세트에서도 1-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왼쪽 어깨 통증을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조코비치는 올해 호주 오픈과 Wimbledon에 이어 이번 시즌에만 메이저 세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었다.

이 대회 2016년 결승에서 바브링카에게 1-3(7-6(7-1) 4-6 5-7 3-7)으로 패한 조코비치는 3년 만에 설욕을 노렸으나 뜻하지 않은 어깨 부상에 털림을 잡았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데이비드 고펜(15위·벨기에)을 3-0(6-2 6-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선정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8강 진출에 실패한 페더러는 2017년 이후 2년 만에 US오픈 8강 무대에 복귀했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가 페트라 마르티치(22위·크로아티아)를 2-0(6-3 6-4)으로 따돌리고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 24회 우승으로 마거릿 코트(은퇴·호주)가 보유한 최다 우승 기록을 나눈 갖게 되는 윌리엄스는 이날 2세트 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쳐 잠시 메디컬 타임아웃을 부르기도 했으나 1시간 32분 만에 16강전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양현종 8월 MVP도 도전...린드블럼 등 5명 후보 올라

KIA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 5월에 이어 8월 월간 MVP에 도전한다.

KBO는 2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8월 MVP 후보를 발표했다. 양현종과 함께 린드블럼, 페르난데스(이상 투수) 배제성(KT), 박병호(키움) 등 5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5월 MVP 주인공인 양현종은 8월 0.51이라는 놀라운 평균자책점으로 다시 한번 월간 MVP를 노린다.

양현종은 8월 5경기에 나와 35 1.3이닝동안 단 2실점만 허용하며 3승을 거뒀다. 유일하게 0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양현종은 8월 28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역대 5번째 1500탈삼진 기록도 작성했다.

린드블럼은 8월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7월에 이어 MVP 후보가 됐다. 8월 16일 홈 16연승으로 신기록을 세운 린드블럼은 승리(4승)와 승률(1.000) 공동 1위, 탈삼진(34개) 부문 2위를 기록했다.

배제성은 8월 6경기에서 승리 공동 1위(4승), 평

균자책점(1.80) 2위에 오르며 데뷔 후 처음 KBO 월간 MVP 후보로 선정됐다. 배제성은 8월 31일 한화전에서 8승에 성공하며 KT 소속 국내투수 최다승 타이 기록도 세웠다.

페르난데스는 8월 한달 38안타와 0.396의 타율을 찍으며 안타와 타율부문 1위에 올랐다. 8월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한 페르난데스는 KBO 리그 안타(172개)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병호는 11홈런, 27타점, 장타율 0.674, 21득점으로 8월 4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8월 27일 청주 한화전에서 3연타석 홈런을 포함, 한 경기 4홈런을 쳐내며 리그 홈런(29개)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한편 월간 MVP는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솔)'에서 6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팬 투표를 합산해 선정된다.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골드배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또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도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위기의 류현진 휴식없이 5일 콜로라도전 재출격

최고의 피칭을 이어가다 최근 3경기에서 최악의 성적을 낸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휴식없이 재출격한다.

류현진은 5일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류현진은 지난달 12일 애리조나전까지 12승 2패 평균자책점 1.45의 성적으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의 강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이후 3경기에서 갑자기 흔들렸다.

그는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5.2이닝 4실점으로 부진한 뒤 2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4.1이닝 7실점으로 고개를 떨궜다. 30일 애리조나 다이나모스전에서도 4.2이닝 7실점을 기록하며 다시 패전투수가 됐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35까지 치솟았다.

류현진은 올 시즌 2014년 이후 최다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데, 투구 수가 많아질수록 눈에 띄게 구위가 떨어지고 있다.

류현진은 18일 애틀랜타전 6회에 연속 타자 홈런, 24일 양키스전 5회에 만루 홈런을 허용하며 무

너졌다. 애리조나전에서도 3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다가 4회에 4실점 했다.

이런 가운데 류현진은 5일 휴식 후 다시 마운드에 선다.

류현진은 올 시즌 콜로라도와 3경기에 나와 16이닝 8자책점, 평균자책점 4.50으로 부진했다. '투수의 무덤'이라 불리는 콜로라도의 홈구장, 쿠어스필드에서 무너지게 됐다.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는 6이닝 1자책점으로 잘 던졌다.

류현진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날 경기는 한국 선수 최초 사이영상 수상 전망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류현진이 주춤한 사이, 경쟁자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워싱턴 내셔널스의 스티븐 스트래츠버그는 16승 5패 평균자책점 3.47, 탈삼진 215개로 다승과 탈삼진, 최다이닝(179이닝) 단독 1위에 등극했다. 맥스 셔저(워싱턴·9승 5패 평균자책점 2.46 탈삼진 200개),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8승 8패 평균자책점 2.66 탈삼진 214개)도 위력적이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9월 4일(수)
▲광주청록산악회 9월4일(수) 전남 완도 금당도 금당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00, 교직원공제회관 06:10, 예술회관후문 06:2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6:3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9월 7일(토)
▲광주참조은산악회 9월7일(토) 경남창

녕 우포늪둘레길 + 함안강주마해 해바라기축제, 풍암롯데마트7주차장 06:30, 진월동육교 06:40, 교원공제회관 07:00, 비엔날레주차장 07:15 *다음카페: 광주참조은산악회 ☎ 010-3631-5913, 010-9972-1314

▲광주호산회 9월7일(토) 고흥 지죽도,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07: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금당산악회 9월 7일(토) 산정 지리산 맹세기길 대원사계곡 트레킹, 봉산동

롯데슈퍼 앞 7시10분,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7시20분, 영주체육관 7시30분, 한국병원 앞 7시40분, 문예회관 후문 7시50분,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8시 *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9월 8일(일)
▲광주산사모산우회 9월8일(일) 영암 월출산,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6:40, 상무무각사 06:50, 광주시의회 06:55, 운남 21세기병원 07:05, 수완 지하도 위 승강장 07:1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07:20, 비엔날레주차장 입구 07:30 *다음카페 광

주산사모산우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존답사회 9월8일(일) 거창 현성산(960m), 필봉(923m), 성령산(448m),수승대, 06:40 영주체육관, 07:00 무등경기장, 07:20 동광주 홈플러스 *다음카페:광주자연보존답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9월 11일(수)
▲광주청록산악회 9월11일(수) 경남 하동 서산대사길 트레킹,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9월 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9월18일(수) 경북 문경 운달산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 후문 07:1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7:20 *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즐거움 문화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 | |
|----|-----------------------------|
| 1관 | 유열의 음악앨범 |
| 2관 | 47미터 2, 후로티로봇 극장판 |
| 3관 | 변신 |
| 4관 | 유열의 음악앨범 |
| 5관 | 엑시트, 만나 |
| 6관 | 변신 |
| 9관 | 눈노의 질주: 흡스&쇼, 47미터 2 |
| 7관 | 씨네커를 봉오동 전투, 블라인드 멜로디, 동기 킹 |
| 8관 | 씨네커를 유열의 음악앨범, 광대들: 풍문조작단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 | | |
|----------------|--------------------|-----------------|
| 기획전시 | 그림, 찰나를 담다 | 8.28-9.29 |
| 11시 클래식 산책 | 악마의 테크닉: 리스트와 파가니니 | 9.10(화) 11:00am |
|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 엔리코 모리코네를 위하여 | 9.19(목) 6:30pm |
|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산 | 앙상블 오데움, 장소의 음악 | 9.25(수) 7:30pm |

그림, 찰나를 담다

열한시 클래식 산책

11시 클래식 산책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 공연산

앙상블 오데움

엔리코 모리코네를 위하여

8.28-9.29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9.10(화) 11:00am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9.19(목) 6:30pm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9.25(수)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